

조선후기 죽산(竹山) 박씨 집안의 조복(朝服)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赤綃衣·赤綃裳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ooksan Park's Cho-bok's of Late Chosun Dynasty
-Based on the jukchoui · jukchosang in museum, Wonkwang University-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건양대학교 의상학과 조교수,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임 상 임 · 유 관 순* · 추 미 경**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o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Im, Sangim · Yoo, Kwan Soon* · Chu, Mi-Kyung **

(2001. 10. 22 접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Jukchoui and Jukchosang from the late 19th century archived at Wonkwang University Museum focusing on the order and techniques of sewing used to make them to arrive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ewing methods in late Chosun period and of 'Po' (Robe), one of the most symbolic outfits in Eastern Asia. Since there is no document on the items in Wonkwang collection, I reproduced and studied them based on the 19th-century sample.

The sewing methods used for these items included fine broad-stitching, saddle-stitching, blind-stitching, and hemming, and there was no lining for the robe. The items in Wonkwang collection seem to reflect the trend of the late Chosun period when various systems including that of clothing were simplified: Jukchoui and Jukchosang in the period had same design for all levels, but colors and lengths were varied to mark the status of the wearer.

Key words: Jukchoui, Jukchosang, Collection ; 적초의, 적초상, 유물

I. 서 론

복식은 인간생활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자연적·사회적 요건과 착용자의 다양한 입상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산물이며 계급과 신분을 표현한다.

한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거기에는 복식에 있어서 사회질서를 보존·유지하기 위한 법률과 규칙이 생겨나는데 조선왕조대(朝鮮王朝代)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당시였으므로 상하·존비·귀천의 등위를 가르기 위한 복식의 제한 또한 엄격하였다.

조선시대의 남자복식(男子服飾)은 왕복, 왕세자복, 백관복, 편복, 사인복, 서인복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1) 임영미, 한국의 복식문화(II), 경춘사, 208

고급관리자 복식이라 할 수 있는 백관복(百官服)²⁾은 조복, 제복, 공복, 상복, 사복, 시복, 응복으로 분류되었으며 무관에게는 따로 군복, 전복의 제가 있었다.

이 중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서의 조복제도는 조선말기까지 계속되었는데 기본적인 형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복식연구에 있어서 조복(朝服)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조복(朝服)의 구성 중에서 특히 적초의·적초상(赤綃衣·赤綃裳)에 대해 살펴본 손바느질의 실증적 고찰로써, 유물에 대한 복원품의 복원과정을 통해서 조선후기의 실질적인 바느질 구성법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복식이라 할 수 있는 '포(袍)'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연구의 목적 및 의의를 두었다.

II. 적초의·적초상의 실증적 고찰

조복(朝服)은 대사·경축일·원단·동지 때에 착용하던 예복(禮服)으로, 백관(百官)들이 조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태종(太宗) 16년의 일이며,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백관의 조복은 양관(梁冠)과 복(服)인 의(衣)·상(裳)·중단(中單)·폐슬(蔽膝)·폐옥(佩玉)·대대(大帶)·혁대(革帶)·수(綬)·말(襪)·혜(鞋)·홀(笏)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

특히, 의(衣)는 순인(純仁)으로 한 적초의(赤綃衣)로 깃·도련·소매 끝에 청선(靑纈)을 들렀으며 품계에 구별없이 모두 같았다. 또한 상(裳)은 적초상(赤綃裳)인데 여기에도 청연을 들렀으며 각품이 같았다⁴⁾고 한다. 하지만 조선후기에서는 의(衣)의 깃·도련·소매 끝과 상(裳)에 들렀던 선이 청선(靑纈)이 아닌 흑선(黑纈)으로 변화되고 사이에 가는 백선이 끼어 있었다.⁵⁾ 이는 숙명여대 박물관(홍완군·1815~1848)⁶⁾, 고려대 박물관(김병기·1818~1875)⁶⁾, 이화여대 박물관(홍선

대원군·1820~1898)⁷⁾ 등에 소장된 유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조상대상이 된 유물에서도 흑선으로 변화되고 사이에 가는 백선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유물의 적초의 고름은 적색이 아닌 흑색으로 부착되었고 폐슬이 부착되지 않았는데, 타박물관(숙명대, 고려대,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후기 적초의에는 폐슬이 부착된 것에 반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원광대 박물관에 있는 적초의에는 폐슬의 바느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후수도 한 소장은 되어 있었지만 본 유물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박물관 측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1. 유물의 배경 및 특징

본 유물은 조복(朝服)중에서 그 일부인 적초의·적초상으로써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다. 적초의·적초상은 19세기말(1883년) 죽산(竹山) 박씨(홍실박씨)인 박주현(朴周鉉, 1844~1910)·박해창(朴海昌, 1876~1933)의 2대가 착용한 것으로써 박주현은 죽산 박씨 61대손으로 갑진(甲辰) 1월 31일생으로 고종(高宗) 1883년 계미(癸未),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및 헌납(獻納),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과 장령(掌令), 어모장군(禦侮將軍), 행룡양위부사직(行龍衛副司直), 홍문관 시강(弘文館 侍講) 통정대부(通政大夫) 비서원(秘書院)을 지냈다.⁸⁾

박해창(1876~1933)은 박주현의 장남으로써 고종(高宗) 병자(丙子), 5월 17일생으로 1894년 갑오(甲午)에 문과(文科) 급제하여 1905년 을사(乙巳)에는 비서감랑(秘書監郎) 홍문관(弘文館) 시강(侍講)이 되었고 경효전(景孝殿) 대축(大祝)으로 육품직(六品職)에 올라 1933년,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⁹⁾

이와같이 2대가 입게된 적초의·적초상의 보관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손바느질로 꼼꼼하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유물은 조선후기의 것으로 적초의

2)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1995, 208-209

3) 유희경·김문자, 전게서, 209

4) 유희경·김문자, 전게서, 210

5) 博物館所藏 名品圖錄, 숙명여대 학교 박물관, 1993, 12

6) 名品圖錄,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229

7)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23), 服飾,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 35

8) 竹山朴氏忠顯公譜卷之二, 165

9) 전게서

의 깃, 도련, 소매끝은 흑색을 들렀는데 특이한 점은 저고리의 고름색이 적색이 아니라 흑색으로 되어 있어 혹시 박물관에서 인수(引受)시 흑색으로 복원한 것이 아닐까 했지만 그의 후손에서 받은 그대로의 형태라 하였다. 또한 적초상은 전(前)3, 후(後)4폭이 아닌 전4, 후3폭으로 주름의 수는 각각 27개와 22개의 선으로 문헌과는 다른 형태였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서는 제도를 재정비를 하는 시기이며 의장제도에 있어서도 간소하게 정비된 시기' 10였기에 적초의·적초상 또한 형태는 품계에 구별없이 모두 같았지만 색상이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2. 실측치수 및 바느질법

본 유물중 적초의는 문헌에 나타난 것처럼 적색이지만 색상이 거의 바랬으며 치수에서는 앞길이가 100cm, 뒷길이 99cm로 조선 후기 타박물관의 유물 비교하였을 때, 숙명여대 박물관(홍완근·1815~1848) 유물은 길이 104cm·화장 102.5cm 이었으며 고려대 박물관(김병기·1818~1875)은 길이 97cm·화장 82cm이었다. 또한 이화여대 박물관(홍선대원군·1820~1898)에 소장된 유물은 그 길이가 92cm·화장 90cm인 점으로 보아 착용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 치수는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표 1참조>

사용된 바느질법을 살펴보면, 적초의는 홑겉에 선단(0.1cm의 가는 백선을 낀 0.1~0.2cm은박음질로 처리한 장식단)을 대어 단을 처리한 것으로 어깨는 앞뒤가 골로 연결되어 1장구성이었으며 어깨바대가 있고 깃은 선단과 안감 2장으로 구성된 끈은깃이었다. 또한 적초의에서는 주로 포에 사용되었던 겨드랑이의 무대신 겹마기로 처리하여 앞·뒷길이 서로 트여있는게 특징이며 넓은 겹선과 안선 모두 선단을 댄 후 겹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상침하였으며 안·겹선과 고운 홉질로 연결하였다.

소매는 먼저 선단을 홉질로 연결하며 어깨중심선에 맞추어 진동을 연결한 후, 수구(19cm)만 남기고 소매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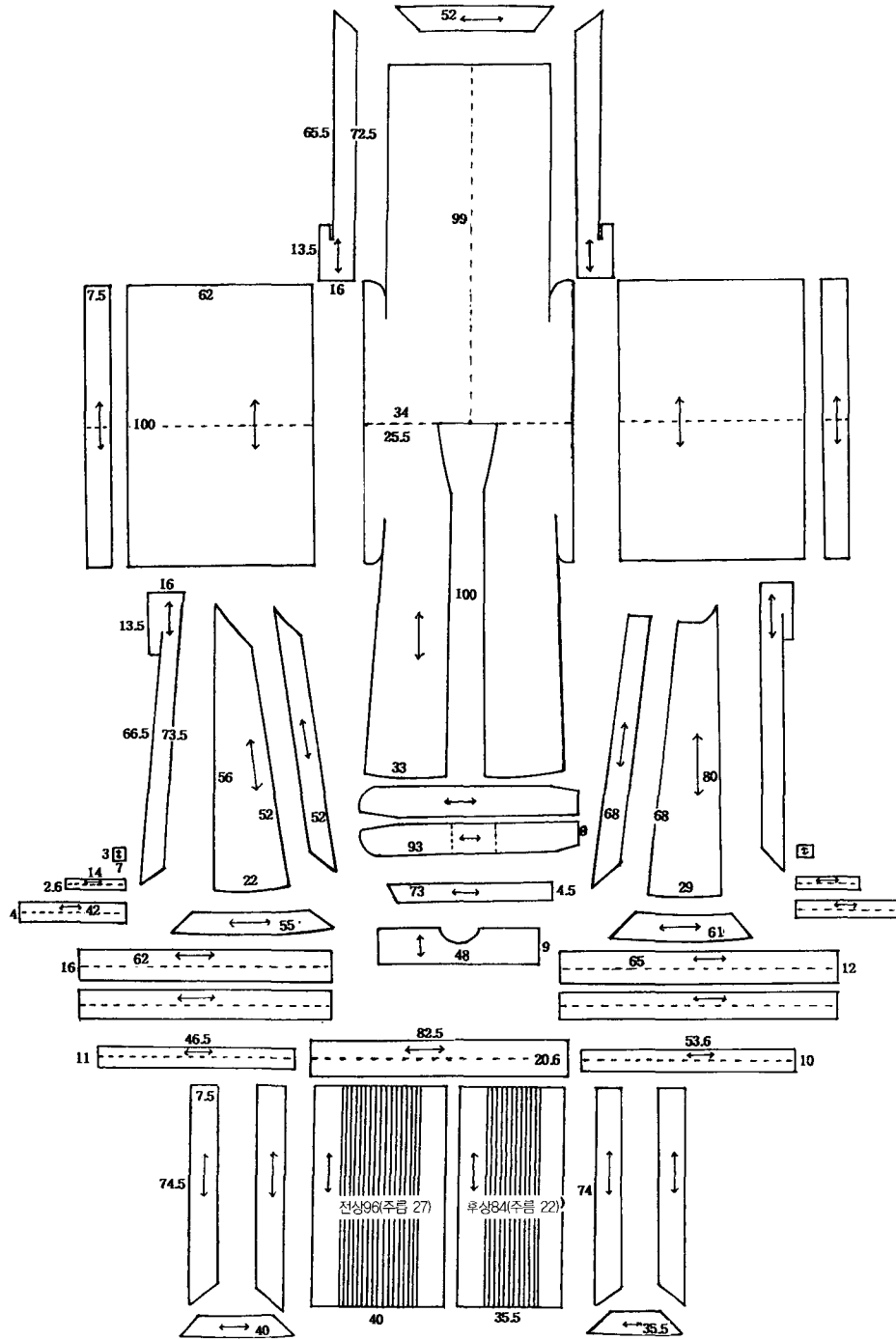
〈표 1〉 실측치수 (단위 : cm)

적초의 실측항목	치수	적초상 실측항목	치수	
길이	앞길이 100, 뒷길이 99	상-주름	좌(주름수:27) [길이:74.5 너비:上41 下:40] 우(주름수:22) [길이:74 너비:上:36.5 下:35.5	
뒷폭	49			
화장	96			
진동	30.5			
배래	70			
소매부리	19			
고대/2	8			
깃	너비/길이:102/93 좌:45.5 우:31.5	상-허리	너비	10.3
겹선길이	길이/사선:80/68		길이	82.5
안선길이	길이/사선:56/52			
자락너비	뒷길:52 앞길	상-끈	좌너비/길이	5.5/46.5
동정	좌:55 우:57			
고름	겹(겹깃쪽:62겹쪽:63.5) 안(안깃쪽:65겹쪽:65)		우너비/길이	5/53.6



[사진 1] 조복(朝服) 중 적초의·적초상 유물

10) 홍나영, 「왕세자출궁도」의 복식연구Ⅱ, 服飾 31號,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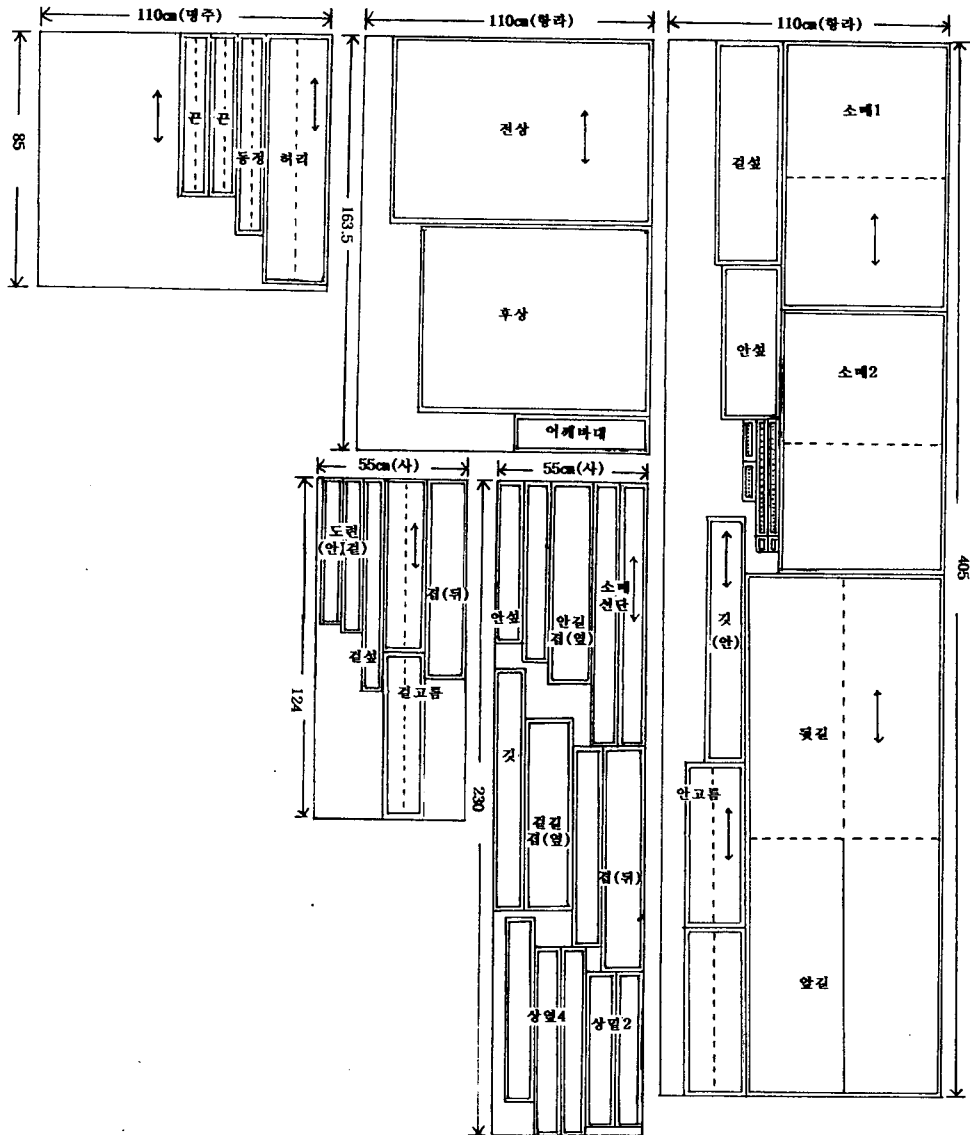


[그림 1] 실측도

은 공그르기를 하였다. 그리고 도련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1cm까지 만 고운 흠질하여 겹마기 선단을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겨드랑이부분에서 Y자형으로 가윗질을 한 후 뒤집어서 앞·뒷길의 옆선과 각각 고운 흠질로 연결하고 상침하였다. 고름은 겹고름과 속고름이 있는데 겹고름은 문헌에 나타난 것처럼 색상에서 적(赤)고름이 아닌 흑(黑)고름이었으며 고름의

봉제는 홉것으로 0.5cm간격으로 속공그리기하였고 오늘날의 고름 다는 방식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접은 1cm정도를 주어 최소한의 시접으로 옷감을 절약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적초상은 문헌에 나타난 것처럼 전(前)3, 후(後)4폭이 아닌 전4, 후3폭으로 주름의 수는 각각 27개와 22개의 주름으로 구성되어 문헌과는 상이하게 다른



[그림 2] 마름질도

면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시접은 1cm였다.[사진 1참조]

Ⅲ. 복원품을 통한 고찰

1. 제도

유물에 나타난 의복의 형태 및 치수를 조사하여 복원도를 그대로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로 사용하였다.(그림 1참조)

2. 마름질

1) 옷감 필요량

적초의·적초상 제작시 필요한 옷감량은 <표 2>와 같은데 <표 2>의 환산치는 cm를 기준으로 90cm당 1마로 계산한 것이다. 적초의 몸판이나 적초상의 주름부분을 길이와 폭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포폭 110cm기준으로 항라(尙羅)가 약 568.5cm(약 6½마)가 필요하며 모든 선단부분(혹선)은 포폭 55cm기준으로 사(紗)가 약 358cm

<표 2> 마름질 치수 산출표

(단위 : cm)

항라(포폭:110cm, 1마: 90cm) - 적초의(몸판)·적초상(주름)

품목	항목	길이	폭
적초의	길(2장)	앞길이(100)·뒤길이(99)+시접(2)	201
	소매(2장)	소매길이(50)×4+시접(4)	204
	겉섶(1장)	겉섶길이(83)+시접(2)	(85)
	안섶(1장)	안섶길이(56)+시접(2)	(58)
	바대(1장)	어깨바대(9)+시접(2)	11
	깃(1장)	겉·안깃+고대+시접(2)	(95)
	안고름(2장)	안고름(65)×2+시접(4)	(134)
끈	끈고리43+42+시접(2), 끈 14×2+시접(4)	(119)	
적초상	주름(2장)	전상(74.5)+후상(74)+시접(4)	152.5
계	총필요량	약 568.5 cm (약 6½마)	

사(포폭: 55cm, 1마: 90cm) - 선단부분(혹선)

품목	항목	길이	폭
적초의	겉길(3장)	겉바대(82)+도련(57)+겉섶(68)+시접(6)	(213)
	안길(3장)	겉바대(82)+도련(55)+안섶(32)+시접(6)	(195)
	뒷길(3장)	겉바대(82)×2+시접(2), 도련(52)+시접(2)	84(220)
	소매(2장)	소매(100)×2+시접(4)	104
	깃(1장)	겉깃길이(31.5)+안깃길이(45.5) +고대(16)+시접(2)	(95)
적초상	상(6장)	전(74.5)×2+밑단(40) 후(74)×2+밑단(35.5)+시접(2)	42(374.5)
	고름(2장)	겉고름(62)×2+시접(4)	128(128)
계	총필요량	약 358 cm(약 4마)	

명주(포폭: 110cm 1마: 90cm) - 적초의(동정)·적초상(허리, 허리끈)

품목	항목	길이	폭
적초의	동정	길이(73)+시접(2)	(75)
적초상	허리(1장)	상허리길이(82.5)+시접(2)	84.5
	끈(2장)	좌(46.5)+우(53.6)+시접(4)	(104.1)
계	총필요량	약 85cm (약 1마)	

(약 4마), 그리고 명주(明紬)재료는 적초의 동정과 적초상의 허리·끈 부분으로써 포폭 110cm기준으로 약 85cm(약 1마)가 필요하였다.<표 2 참조>

2) 마름질도

마름질도는 복원도를 중심으로 각 품목을 옷감의 재질에 따라 향리(적초의 몸판·적초상 주름)와 사(선단부분의 흑선) 그리고 명주(적초의 동정·적초상 허리와 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시점으로 1cm를 주었으며(등술은 1.5cm) 앞·뒷길은 지금과는 달리 1장구성으로 어깨를 골선으로 처리하였는데 어깨바대를 구성, 이를 좀 더 견고하게 하였으며 길폭을 절약하기 위하여 앞·뒷길의 옆선 결바대 경우는 식서방향으로 하되 서로 엇갈리게 제도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바느질 순서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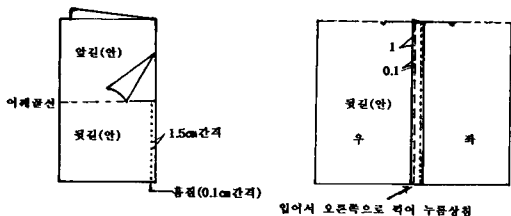
1) 어깨슬기박기

어깨슬기는 골선으로 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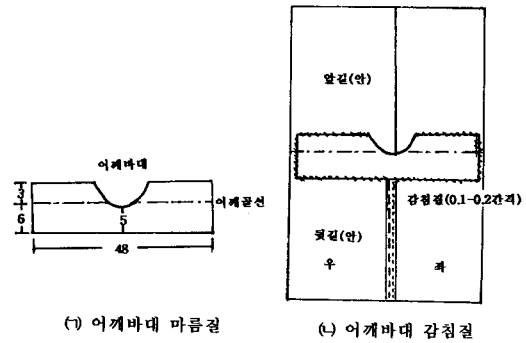
2) 등술박기

ㄱ. 등술은 등중심선을 골선으로 처리해서 어깨슬기를 하듯이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좌 우 뒷길 중심선을 1.5cm시점이 되도록 마주 잡고 위에서 밑으로 0.1cm 간격으로 고운흡질을 한다. 시점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꺾어 넣는다.

ㄴ. 넘긴 시점은 겉에서는 0.1cm간격, 안에서는 1cm으로 눌러 겉에서는 점으로만 나타나는 아주 고운 바느질로 상침한다. 이는 등술의 중심선을 나누는 지금의 형태와는 달리 최소한의 시점으로 겉에서는 점의 형태만 띠는 아주 고운 바느질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등술박기



[그림 4] 어깨바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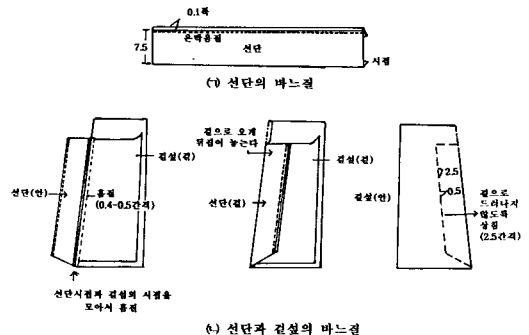
3) 어깨바대 달기

어깨바대는 (그림 4)에 나타난 모양대로 잘라 앞·뒷길의 어깨에 대고서 고운 감침질로 바느질하는데 이는 어깨를 골선으로 처리한 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4) 섹 선단 붙이기

ㄱ. 선단은 (그림 5)의 모양처럼 7.5cm폭의 사(紗)로 된 단 위에, 0.1cm폭의 가는 백선이 나타나도록 0.1~0.2cm 간격으로 고운 온바음질을 한 장식단이다.

ㄴ. 완성된 선단(안)의 시점을 겉선의 완성선에 대고 0.4-0.5cm간격으로 흡질을 한 후, 선단(겉)을 겉선의 위에 놓고 안에서 나오는 땀 2.5cm간격으로 바느질하되 들어가는 땀 0.5cm간격으로 살짝 떠서 상침한다. 안선의 선단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홀 것으로 인한 단 정리나 형태고정 그리고 미적 측면 등을 엮을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섹선단 붙이기

5) 결섵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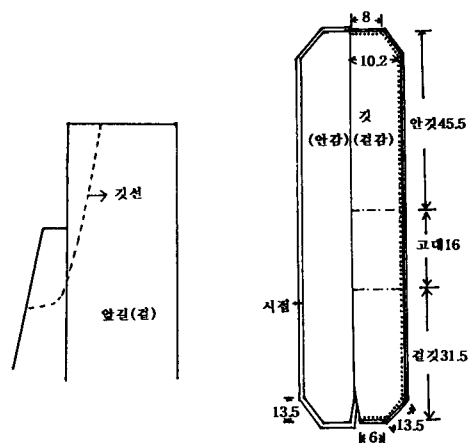
ㄱ. 선단 처리된 결섵을 앞 결길의 완성선에 대고 0.4~0.5cm 간격으로 홈질한다.

ㄴ. 시접은 1cm 남기고 잘라낸 후, 시접은 결섵쪽으로 꺾는다.

6) 안섵 잇기

ㄱ. 선단 처리된 안섵을 앞 결길의 완성선에 대고 0.4~0.5cm 간격으로 홈질한다.

ㄴ. 시접은 1cm 남기고 잘라낸 후, 시접은 길쪽으로 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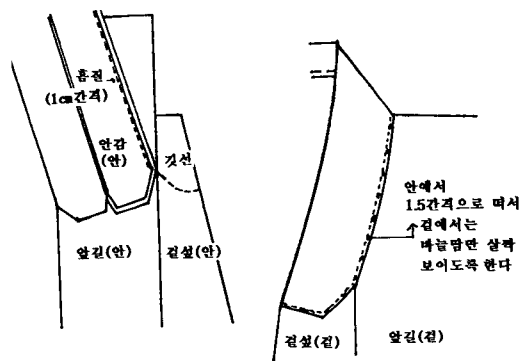
(ㄱ) 깃선 표시 및 깃 선단 만들기

7) 깃 선단 처리 후, 깃 놓기

ㄱ. 길에 깃선을 표시하고 깃의 안감과 결감(선단)을 연결하여 완성모양대로 만들어 안감의 시접만이 접어 놓는다.

ㄴ. 깃선이 일치하도록 길 안쪽에 깃의 안감의 겹을 맞대어 놓은 상태에서 시접쪽으로 0.1cm 나와 곱게 홈질한 다음, 길 걸쪽으로 뒤집는다.

ㄷ. 길의 안에서 나오는 땀 2.5cm 간격으로 하며 겹에서는 살짝 바늘땀만 나타나게 하여 깃을 고정시킨다. (그림 6 참조)



(ㄴ) 깃 놓기 및 깃 가장자리 삼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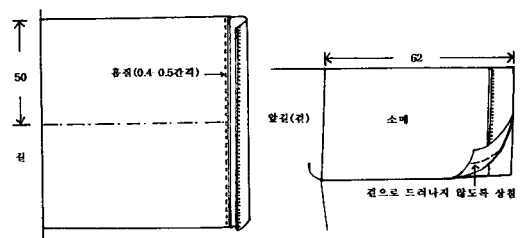
[그림 6] 깃 달기

8) 소매 선단처리

소매(안)시접에 소매 선단(결)시접을 대고 0.4~0.5cm 간격으로 홈질을 한 다음, 선단이 소매 겹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땀 1.5cm 간격으로 삼침 한다. (그림 7 참조)

9) 진동솔 잇기

앞길의 어깨솔기가 소매 중심선과 어긋나지 않도록 길과 소매를 겹끼리 잘 맞대어 놓고 0.1cm의 고운 홈질로 바느질 한 후,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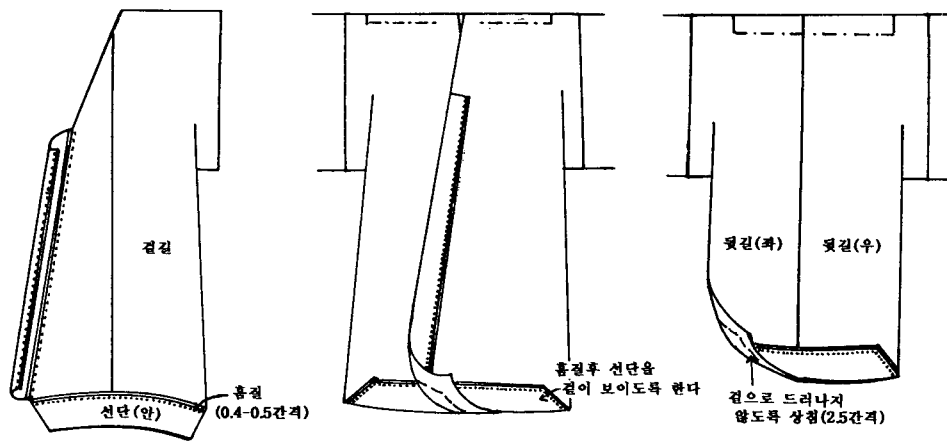
[그림 7] 소매 선단 처리

10) 배래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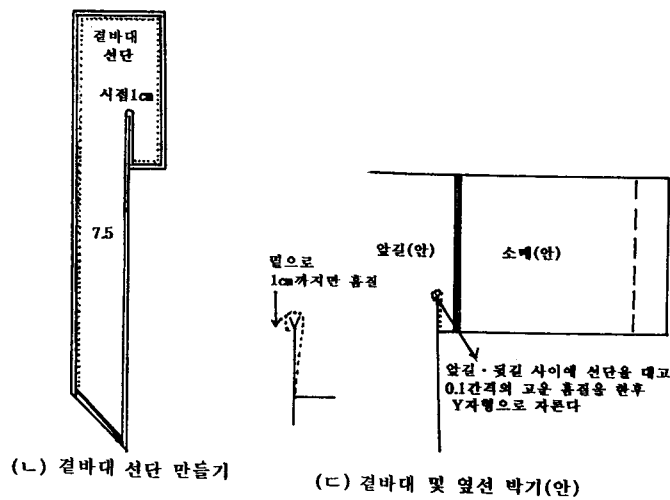
0.1cm 간격의 고운 홈질로 바느질 한 후, 시접은 뒷길 쪽으로 넘기며 소매부리(19cm)만 남기고 나머지 소매 통은 공그리기 한다.

11) 도련·옆선 및 결바대 선단처리

ㄱ. 결바대 선단을 준비하여 앞·뒷길 안에서 길과 선단이 잘 일치되도록 고정한다. 다음 고운 홈질을 한 후, Y자형으로 가윗질을 한다. 이때, 겨드랑이에서 1cm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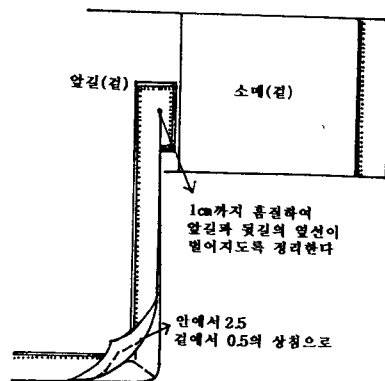


(가) 도련 선단 처리



(나) 결바대 선단 만들기

(c) 결바대 및 앞선 박기(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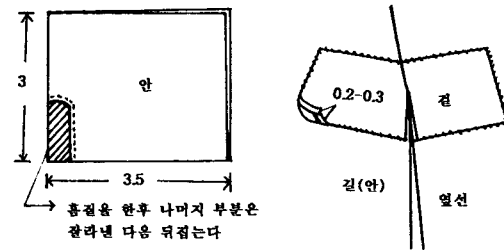


(c) 결바대 및 앞선 박기(뒤)

[그림 8] 도련·앞선 및 결바대 선단 처리

내려 오도록 바느질하여 앞길과 뒷길의 옆선이 잘 벌어지도록 한다.

ㄴ. 옆선과 도련에 처리할 선단을 준비하여 0.4~0.5cm 간격으로 홈질 한 후, 안에서 나오는 땀 2.5cm 간격으로 상침하여 고정시킨다.(그림 8 참조) 이것은 무를 달았던 포의 형태에서 활동의 여유를 주는 기능성을 위하여 무없이 옆선을 트여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 겨드랑이 바대 처리

12) 겨드랑이 바대 처리

겨드랑이 안에 땀 바대는 길의 올방향과 같으며 가로 3cm · 세로 7cm로 마름질 하여 골선이 되도록 (그림 10)처럼 접어 박은 후, 빗금친 부분은 잘라낸다. 완성된 바대를 겨드랑이에 대고서 시접 0.2~0.3cm 정도를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감침질한다. 이는 흘것으로 인하여 옆 겨드랑이의 견고함으로 더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9 참조)

10 참조)

14) 상-주름잡기

왼쪽방향으로 0.8~1cm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 꺾은 후, 주름이 뜨지 않도록 겉에서 0.1cm 땀, 안에서 2.5cm 땀의 시침으로 떠준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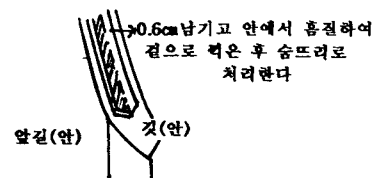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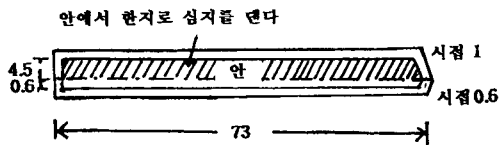
13) 동정 및 끈고름달기

ㄱ. 동정 안쪽에 한지로 심감을 붙인 후, 안에서 겉으로 꺾어서 숨뜨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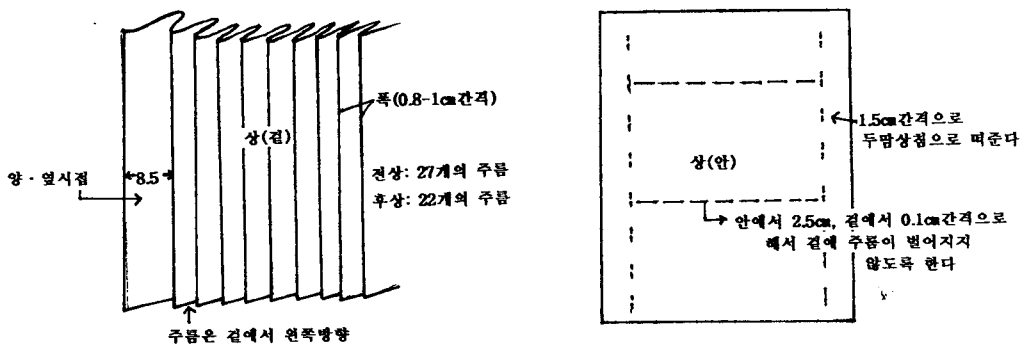
ㄴ. 끈고름을 0.5cm 간격으로 속공그리기 한다.(그림

15) 상-옆단 · 밑단 선단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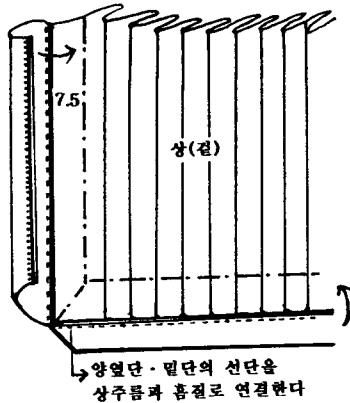
옆단에는 7.5cm 폭, 밑단에는 8cm 폭의 선단을 대고 안에서 나오는 1.5cm 간격으로 두땀 상침하여 고정시킨다.(그림 12 참조)



[그림 10] 동정 달기



[그림 11] 상-주름잡기



[그림 12] 상-옆단·밑단 선단 처리

16) 상-허리·끈 달기

허리와 상이 연결되는 부분은 겉으로 나오는 땀 1.5cm간격으로 위에서 상침하며 끈과 연결되는 부분은 0.5cm간격으로 속공그리기 하며 끈도 0.5cm간격으로 속공그리기 한다.

이와 같이 복원을 통해서 본 전체적인 바느질법에 서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앞·뒷길이 1장 골선으로 처리됨에 따라 어깨바대를 대어 어깨를 좀 더 견고하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뒷길에서는 등솔의 중심선을 나누는 지금의 형태와는 달리 골선으로 최소한의 시점으로 겉에서는 점의 형태만 띠는 아주 고운 바느질로 싹술을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선단은 적초의·적초상이 홀것으로 인한 단 정리나 형태고정 그리고 미적 측면 등을 엿볼 수 있는 장식단 이외의 또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길의 옆선에서는 무를 달았던 이전의 포의 형태에서 활동의 여유를 주는 기능성을 위하여 선단처리를 하여 벌려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바느질법은 주로 고운홈질, 누름상침, 숨은 공그리기, 감침질 등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유물인 적초의·적초상을 통해서 본 당시의 바느질법에서는 옷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시점으로 손쉽고 간편하게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형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봉제법을 미적측면과 잘 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사진 2 참조]



[사진 2] 복원품

IV. 결 론

이상 문헌과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인 적초의·적초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조복(朝服)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전시된 적초의·적초상은 19세기말(1883년) 죽산(竹山) 박씨(흠실박씨)인 박주현(朴周鉉)·박해창(朴海昌)의 2대가 착용한 조복중 일부분으로 조선후기때의 유물로써 의(衣)의 깃·도련·소매 끝과 상(裳)에 돌렸던 선이 청선(靑線)이 아닌 흑선(黑線)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유물의 적초의 고름은 적색이 아닌 흑색으로 부착되었고 폐슬이 부착되지 않았으며, 적초상은 전(前) 3, 후(後) 4폭이 아닌 전 4, 후 3폭으로 주름의 수는 각각 27개와 22개의 선으로 되어 있었다. 이 중 조복의 구성품목으로 폐슬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지만 죽산 박씨 집안에서 소실되었는지 또는 원래 안 붙었는지는 흔적이 없어 알 수가 없었으며 적초의 고름과 적상의 또한 박물관측에서는 인수한 유물 그대로 인점을 보아 죽산 박씨 집안에서 전, 후 잘못 사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적초의·적초상 제작시 필요한 옷감량은 cm를 기준으로 90cm당 1마로 계산하여 적초의 몸판이나 적초상의 주름부분을 길이와 폭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포폭 110cm기준으로 향라가 약 568cm(약 6½마)가 필요하며 모든 선단부분(흑선)은 포폭 55cm기준으로 사가 약 358cm(약 4마), 그리고 명주재료는 적초의 동정과 적초

상의 허리·끈 부분으로써 포폭 110cm 기준으로 약 90cm (약 1마)가 필요하였다.

3. 바느질법에서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어깨바대를 대어 어깨를 좀 더 견고하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뒷길에서는 골선으로 하여 최소한의 시점으로 겉에서는 점의 형태만 띠는 아주 고운 바느질로 싹술을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단은 적초의·적초상이 홉것으로 인한 단 정리나 형태고정 그리고 미적 측면 등을 엿볼 수 있는 장식단 이외의 또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길의 옆선에서는 무를 달았던 이전의 포의 형태에서 활동의 여유를 주는 기능성을 위하여 선단처리를 하여 벌려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바느질법은 주로 고운흡질, 누름상침, 숨은 공그리기, 감침질 등을 사용하였다.

4. 조선후기에서는 제도를 재정비를 하는 시기로 의장제도에 있어서도 간소하게 정비된 시기였기에 적초의·적초상 또한 형태는 품계에 구별없이 모두 같았

지만 색상이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엿볼 수 있다. 또한 유물인 적초의·적초상을 통해서 본 당시의 바느질법에서는 옷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시점으로 손쉽고 간편하게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봉제법을 미적측면과 잘 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5
 임영미. 한국의 복식문화(Ⅱ). 1997
 명품도록.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1933
 복식명품도록.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복식.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특별전 도록. 1995
 홍나영. 「왕세자출궁도」의 복식연구 Ⅱ. 服飾 31號. 1997.
 竹山朴氏忠顯公講卷之二